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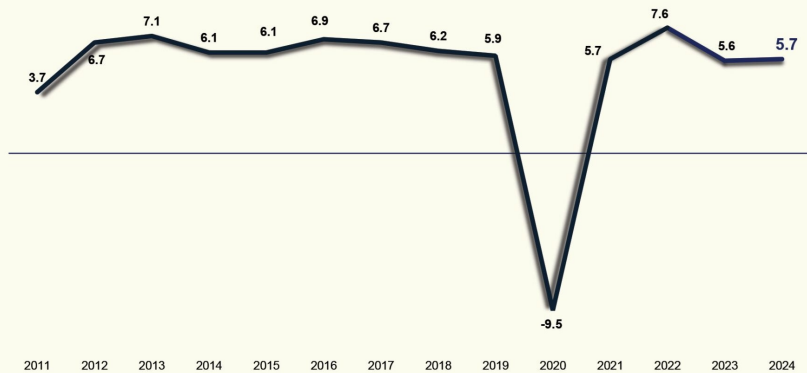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시장 분석가 전망: 소비 · 투자 견조세로 하반기 필리핀 성장세 탄력 전망 — page 1-2
- 전반기 선적 조기집행 효과 후, 필리핀 수출 실적에 관세 영향 반영 전망 — page 2-4
- 증권거래위원회, 보통주 ‘등급 해제’ 명령 — page 4-5
- 1~5월 순외국인직접투자 26.9% 감소...30억 달러 기록 — page 5-6
- 필리핀, 반도체 수출의 미국 관세 면제 추진 — page 6-7
- BSP, JICA launch web-based SME credit scoring platform — page 7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8

시장 분석가 전망: 소비 · 투자 견조세로 하반기 필리핀 성장세 탄력 전망
August 06,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시장 분석가들은 필리핀 경제가 2025년 하반기에 가계 소비의 탄력성과 민간 투자 회복 가능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를 기록한 뒤 나왔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성장 속도로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은 5.4%에 이르렀다.

이는 2025년 필리핀의 연간 GDP 성장 목표치인 5.5~6.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레지나 캐피탈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Regina Capital Development Corp.)의 루이스 림린간(Luis Limlingan) 전무는 2분기 데이터가 견조한 국내 소비와 수출 회복세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민간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많은 이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인슈럴라이프(Insular Life) 펀드매니저 로널드 조셉 란틴(Ronald Joseph Lantin)은 인플레이션 완화로 가계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험 요인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태풍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경기 반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매니지먼트 포 비즈니스 앤드 마케팅 서비스(eManagement for Business and Marketing Services)의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Ravelas) 전무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안정적인 해외 송금이 가계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소비 주도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 라면서도, “미국 관세와 공급망 위험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어 장기 성장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벨라스 전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농업 성장 모멘텀을 활용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선거 관련 공공사업 금지가 없는 점이 인프라 지출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2]

시장 분석가 전망: 소비·투자 견조세로 하반기 필리핀 성장세 탄력 전망

[Cont. from page 1]

멈춤이 아닌 전진

그는 “올해 하반기는 매우 중요하다 — 멈출 때가 아니라 전진할 때” 라고 말했다.

지난주, 필리핀 통계청(PSA)의 클레어 데니스 마파(Claire Dennis Mapa) 청장은 국민총소득(GNI)이 해외 순1차소득(Net Primary Income from Abroad)의 32.8% 급증에 힘입어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GDP는 1.9% 성장했고, GNI는 2.3%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농업은 전년 동기 대비 7% 급증했고, 서비스업은 6.9%, 산업 부문은 2.1% 증가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이 2% 성장하며 선두를 달렸고, 이어 농업이 1.7%, 산업 부문이 0.5% 늘었다. 6월 말 기준 필리핀 경제의 총가치는 6조9,600억 페소에 달했다.

지난주 목요일 2분기 GDP 보고서 발표 이후, 시큐리티뱅크(Security Bank)는 올해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기준금리를 총 5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8월에 25bp, 12월에 추가로 25bp 내려 최종금리는 4.7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 측은 “최신 GDP 수치는 정부의 연간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며, 온건한 인플레이션, 낮은 금리, 개선된 가계 소비와 자본 형성을 근거로 연간 성장률 5.6% 전망을 재확인했다.

지난 금요일, 필리핀 통계청이 2분기 GDP 데이터를 발표한 지 하루 뒤 주식시장에서 기준 지수인 PSEi는 0.53% 상승한 6,339.38로 마감했고, 전체 종합지수(All Shares)는 0.42% 오른 3,767.41을 기록했다.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market-analysts-forecast-ph-growth-to-gain-momentum-in-h2-on-robust-consumption-investment/>

전반기 선적 조기집행 효과 후, 필리핀 수출 실적에 관세 영향 반영 전망

August 10,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보인 성장세는 8월 초부터 둔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한 분석가는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19% 상호 관세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최근 몇 달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수출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관세가 8월 7일 발효되면, 이는 필리핀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대미 수출을 둔화시킬 수 있다” 고 비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해 412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16%로, 금액으로는 65억9,800만 달러에 달했다.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무역 전망에서,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이 예상되기 전에 수입이 급증한 것이 2025년 전망치 상향 조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WTO는 8월 8일부터 세계 상품무역이 2025년에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4월 전망치인 -0.2%에서 상향된 수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최근의 관세 인상 등 지속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은 회복력을 보여왔다. 조기 수입과 개선된 거시경제 여건이 2025년 전망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관세 조치의 전체 영향은 아직 진행 중이다. 관세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여전히 기업 신뢰, 투자, 공급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인 중 하나” 라고 덧붙였다.

WTO는 내년 세계 무역이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WTO는 조기 집행과 무역에 대한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개선으로 일시적인 상승 효과가 있더라도, 최근 관세 변화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하고 있다. [Cont. page 2]

전반기 선적 조기집행 효과 후, 필리핀 수출 실적에 관세 영향 반영 전망

[Cont. from page 2]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무역 전망에서,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이 예상되기 전에 수입이 급증한 것이 2025년 전망치 상향 조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WTO는 8월 8일부터 세계 상품무역이 2025년에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올해 4월 전망치인 -0.2%에서 상향된 수치다.

응고지 오킨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최근 관세 인상 등 지속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은 회복력을 보여왔다. 조기 수입과 개선된 거시경제 여건이 2025년 전망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관세 조치의 전체 영향은 아직 진행 중이다. 관세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여전히 기업 신뢰, 투자, 공급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WTO는 내년 세계 무역이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조기 집행과 무역에 대한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개선으로 일시적인 상승 효과가 있더라도, 최근 관세 변화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WTO는 “이는 여러 요인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한편으로는 미·중 간 휴전과 자동차에 대한 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8월 7일 도입된 더 높은 ‘상호’ 관세율이 미국의 수입을 점차 억제하고, 2025년 하반기와 2026년에 미국의 교역 상대국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리카포트(Ricafort)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의 수출 규모가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에 비해 약 3~5배 작아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최근에는 내수 주도형으로, 전체 경제의 약 70%가 소비 지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몇 달간의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행보를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타협하여 더 낮은 협상 관세에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장은 여전히 ‘관망 모드’라고 덧붙였다.

TACO 이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 초기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만, 나중에는 한발 물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투자 가설이다.

이와 별개로 리카포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이 수출 시장을 다른 부유한 시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제품 외에도 코코넛 오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기타 열대 과일, 참치, 해산물 등 농수산물 수출 유망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라잔 수데시 랏나(Rajan Sudesh Ratna) 경제담당관과 징 황(Jing Huang) 경제담당관은 미국의 관세가 아세안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관세는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구매자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도록 해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무역 흐름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 이탈한 무역이 아세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순수하게 무역 창출이 아닌 무역 전환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전체 수요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처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전환된 무역을 흡수할 수 있는 아세안의 역량은 유연한 공급망과 개방적 무역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아세안의 수출이 “중국을 경유해 수출될 경우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중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내 무역(intra-ASEAN trade)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Cont. page 4]

전반기 실적 조기집행 효과 후, 필리핀 수출 실적에 관세 영향 반영 전망

[Cont. from page 3]

그들은 “회원국 간 규제 조화와 관세 인하를 통한 역내 무역 강화는 아세안 내부에 보다 견고한 내부 시장을 형성하고, 추가적인 미국 관세로 인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상황을 예방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세안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외부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집단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은 중국과의 양자 및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해 변화하는 무역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FTA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비스 무역에 집중하고 디지털 정책을 채택할 것도 권고했다.

그들은 “미국의 상호 관세가 거의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서 아세안 회원국의 일부 공급망 연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아세안은 대체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다른 주요 시장을 모색하고, 서비스 무역을 FTA에 포함해 집중하며,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FTA 체결, 그리고 역내 무역 확대 방안 논의 등이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8/10/690576/phl-export-data-to-start-reflecting-tariff-impact-after-1st-half-boosted-by-frontloaded-shipments/>

증권거래위원회, 보통주 ‘등급 해제’ 명령

August 08, 2025 | Ted Cordero | GMA Integrated News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요일, 상장 기업들에게 외국인 지분 한도 모니터링을 위해 시행했던 보통주의 등급 구분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식 거래와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SEC는 성명에서 ‘정규 거래소에서 B주 거래를 허용하고, 매수자가 A주 또는 B주 증권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0호 증권거래위원회 회람(SEC MC No. 10, Series of 2025)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 규제기관은 이번 지침이 1973년에 제정된 ‘주식의 외국인 지분 40% 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하기 위해 만든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3년 규정에 따르면, A주는 필리핀 시민에게만 발행할 수 있으며, B주는 필리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SEC는 이러한 등급 구분이 A주와 B주 간의 불공정한 가격 격차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러한 구분은 거래 참가자들과 필리핀증권결제공사(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에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해왔다” 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증권거래소(PSE)의 거래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발전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등급 구분은 이미 불필요해졌다” 고 덧붙였다.

SEC는 이미 1997년부터 상장기업의 이러한 주식에 대해 등급 해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A종과 B종으로 분류된 주식은 해당 명령의 장래 적용에 따라 그대로 유지됐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 규제 당국은 주식 거래의 집행 및 결제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의 보통주를 A종과 B종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고 밝혔다.

[Cont. page 5]



In a statement, the SEC said it issued SEC Memorandum Circular (MC) No. 10, Series of 2025, providing for the “Repeal of the Rules Allowing the Trading of ‘B’ Shares on the Regular Board and Requiring Buyers to Accept either ‘B’ or ‘A’ Certificates.”

증권거래위원회, 보통주 ‘등급 해제’ 명령

[Cont. from page 4]

SEC 회람에 따르면, A종과 B종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관(AOI)을 수정하여 의무적인 주식 등급 해제를 반영해야 한다.

SEC는 “정관 수정 기간 동안 정규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결제한 특정 등급의 주식을 인도받아야 하며, 다른 등급의 주식을 강제로 받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거래가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외국인 매수자는 브로커를 통해 해당 초과 주식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발견 즉시 현 시세로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초과 주식 처분 대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시간 중에 위반이 발견되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주식은 발견 즉시, 같은 거래일 안에 처분해야 한다. 거래 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거래일 개장 시 즉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이 회람 위반 시에는 공지와 청문 절차 후, 공화국법 제8799호(증권규제법) 제54조에 따라 적절한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NB,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55296/sec-orders-declassification-of-common-shares/story/>

1~5월 순외국인직접투자 26.9% 감소...30억 달러 기록

August 12, 2025 | Lee Chipongian | Malaya Business Insight



2025년 1~5월 필리핀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40억 달러 대비 26.9% 감소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월요일 밝혔다.

다만 2025년 5월 한 달 기준 순FDI는 5억8,600만 달러로, 2024년 5월의 4억8,300만 달러보다 21.3%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미국의 제조업 분야 투자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5월 기준 부채성 증권은 전년 동월 대비 88.3% 증가한 4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1~5월 누계로는 21억5,000만 달러로 14.1% 감소했다.

5월 배당금 채투자자는 9,700만 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1~5월 누계로는 4억4,500만 달러로 6% 증가했다.

채투자자를 제외한 자본금은 5월에 6,200만 달러로 61.4% 급감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3억6,400만 달러로 67.6% 감소했다.

5월 자본금의 출처는 미국이 36%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3%, 싱가포르 12%, 한국도 12%를 차지했다. 올해 누계로는 일본이 39%로 1위였으며, 미국이 21%, 싱가포르 14%, 한국 8% 순이었다.

5월 FDI 유입액의 약 절반(49%)이 제조업으로 향했으며, 이어 부동산(14%), 전력 공급(13%), 기타 부문(24%) 순이었다.

올해 1~5월 누계로는 제조업이 48%를 차지했고, 부동산 20%, 금융·보험 12%, 기타 21%였다.

BSP는 자사 FDI 통계는 실제 유입액을 반영하는 반면, 필리핀통계청(PSA)의 수치는 투자 약정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BSP는 올해 순FDI가 75억 달러, 2026년에는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성장 전망,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개혁에 힘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6]

1~5월 순외국인직접투자 26.9% 감소...30억 달러 기록

[Cont. from page 5]

2025년 5월 한 달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은 2024년 5월의 4억8,300만 달러에서 21.3% 증가한 5억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이는 주로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5월의 지분자본은 주로 미국(36%), 일본(33%), 싱가포르(12%), 한국(12%)에서 유입됐다. 올해 누적으로는 일본이 39%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21%), 싱가포르(14%), 한국(8%) 순이었다.

5월 FDI의 절반가량(49%)은 제조업에 투입됐으며, 이어 부동산(14%), 전력 공급(13%), 기타 부문(24%) 순이었다.

올해 1~5월 기준으로는 제조업(48%), 부동산(20%), 금융·보험(12%), 기타(21%) 순으로 분포됐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net-fdi-down-26-9-at-3b-in-jan-may/>

필리핀, 반도체 수출의 미국 관세 면제 추진

August 10,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수입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대통령 투자·경제특별보좌관실(OSAPIEA)이 밝혔다.

어제 열린 필리핀경제기자협회(Economic Journalist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2025 경제포럼에서 프레더릭 고 특별보좌관(SAPIEA)은 정부가 반도체 관세 시행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의 반도체 수출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예외에 포함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조 중이거나 제조를 약속한 기업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칩 수입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부과금이 언제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고 씨는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사실상 부과금이 없는 것과 같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고 미국에서만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믿는다면, 미국 노동자들이 매우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조립·검사·포장 업무를 하길 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필리핀 내 모든 사업을 실제로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세계 질서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반도체 관세 면제를 협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필리핀에서 수출되는 반도체, 즉 ATP(조립, 테스트, 패키징)가 이러한 조치에서 면제되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반도체전자산업재단(SEIPI) 회장 댄 라치카는 비버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면제 추진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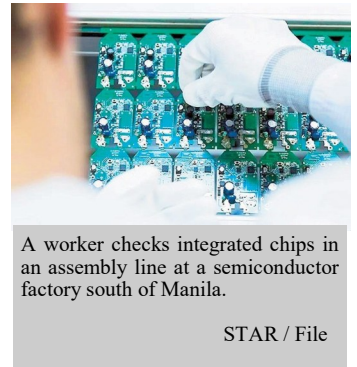
그는 “정부가 반도체 수출에 대한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출은 어떤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부과한 19% 상호관세는 반도체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라치카 회장은 필리핀산 반도체 수출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필리핀 반도체·전자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Cont. page 7]



필리핀, 반도체 수출의 미국 관세 면제 추진

[Cont. from page 6]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는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필리핀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에 216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6억3천만 달러보다 5% 증가했다.

Oikonomia Advisory & Research의 이코노미스트 레이니엘 매트 에레제는 이메일에서, 전자제품 생산용 칩 제조에 중요한 반도체 제품과 소재가 필리핀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필리핀의 수출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모두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매우 적고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낮으면 국제 무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12/2464788/philippines-wants-chip-exports-exempted-us-tariff>

BSP · JICA, 웹 기반 중소기업 신용평가 플랫폼 출범

August 12,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The Credit Risk Database Philippines (CRDPH) System upgrades the existing stand-alone scoring tool into an automated online platform. It forms part of the second phase of the BSP-JICA Credit Risk Database project started in 2020.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이 중소기업(SME)의 신용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웹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필리핀 신용위험 데이터베이스(CRDPh) 시스템은 기존의 독립형 평가 도구를 자동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2020년에 시작된 BSP-JICA 신용위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2단계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대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위험 기반 대출, 대출 금리 산정, 담보 의존도 감소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SP는 은행과 기타 BSP 감독 대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CRDPH 시스템이 데이터의 안전한 제출·처리와 CRD 산출물의 검색을 간소화하는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독립형 CRD 평가 도구를 웹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됐다.

BSP는 “CRDPH 시스템은 기존 모델과 도구를 보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차주의 신용위험 기반 평가를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며, 대출 금리 산정을 개선하고, 담보 의존도를 낮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33개 선도 금융기관이 제출한 익명 처리된 재무·비재무 데이터와 차주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통계 모델을 활용해 산업, 지역, 주요 재무 비율 등 유사한 속성을 가진 중소기업 차주에 대해 부도 확률과 신용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신용정보사와 달리 CRD는 개별 차주의 신용이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금융기관이 내부 신용평가 절차에 통합할 수 있는 통계적 산출물을 제공한다.

CRDPH 시스템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기존 및 신규 참여 기관 모두가 표준 양식을 사용해 익명화 및 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중소기업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암호화와 안전한 전송 채널을 사용해 BSP의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을 준수한다.

BSP는 이 플랫폼이 자체 중소기업 신용평가 모델이 없는 금융기관과 있는 기관 모두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델이 없는 기관은 대규모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완성형 위험 평가 도구로 CRD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고, 모델이 있는 기관은 CRD 데이터를 활용해 내부 등급을 검증할 수 있다.

현재 CRDPH 시스템 이용은 무료이며, 향후 운영 지속을 위해 요금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 향후 개선 계획에는 CRD 산출물과 금융기관의 내부 점수 비교, 중소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컨설팅, 은행이 산업 동향을 추적하고 대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통계 보고서 제공 등이 포함된다.

2001년 52개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165개 회원을 보유한 일본의 CRD 시스템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 확대, 무담보 대출 증대, 위험 기반 보증료 책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일본 외 국가 중 최초로 이 모델을 도입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12/2464780/bsp-jica-launch-web-based-sme-credit-scoring-platfor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PAU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MICHAEL ARCATON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GRACE MIRANDILLA-
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ORGANIZ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